

장외 요인이 증시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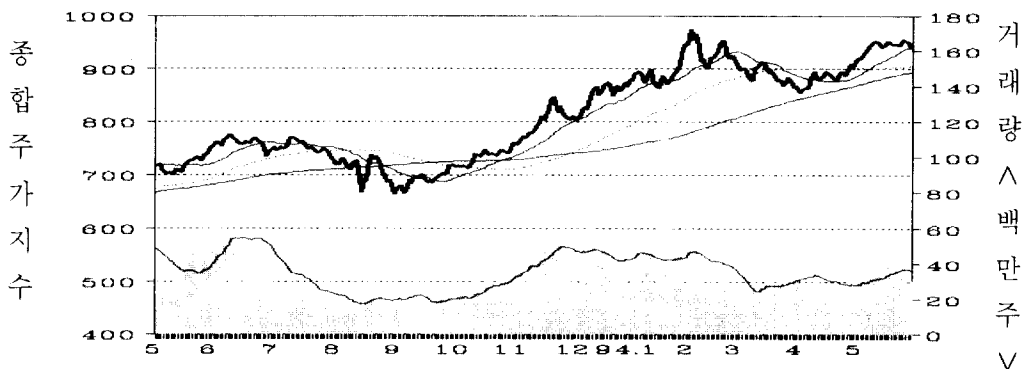
朴鍾坤*

再도전의 증시

5월의 주식시장은 당초 예상대로 강세 국면을 보였다. 지난 30일까지 업종별로 발빠른 순환매를 형성하면서 월초 대비 2.2% 상승하였다. 그러나 前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미력함도 보여주었다. 우리 증시는 지난 2 ~ 4월의 조정 기간을 끝내고 재상승 기반을 구축했으나 최근 보이고 있는 업종별, 재료별 순환매 현상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없다.

再상승 힘다지기

우리 주식시장의 과거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름 강세장(Summer Rally)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우리의 여름 증시는 거의 색깔 없는 계절적(Seasonality)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증시는 경기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순환매하는 즉, 주도株 찾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再상승 초기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식의 여름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강세 국면의 지속이 기대된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국어대학 석사, 증권·금융 전공.

장외 요인이 증시 좌우

앞서 언급했듯이 6월 우리 증시는 계절적인 특징은 없으나 강세 국면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최근의 증시가 지난 수 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일로에 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4 분기 경제 성장률도 3년만에 최고인 8.8%로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완전히 진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경제 성장률로 미루어 보아 상장기업들의 영업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중 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시중 자금 흐름도 주식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외 요인으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노사분규가 주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물가가 불안하다는 여론도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시기다.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신규 공급 물량(유상증자 및 공모주 청약과 신주 상장분) 또한 수급 측면에서 부담을 줄 것이다.

우량주와 실적주를 겨냥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최근과 같

은 순환매 성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품·소재 등 경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목들은 순환매로 인해 단기 상승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주식 소유 한도 확대 등 중·장기적인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우량주(Blue-chip)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6월의 포트폴리오도 지난 몇 개월간 본 란에서 주장해 온 것처럼 포트폴리오에서 우량주 및 자산주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경기 관련 종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잊어서는 안될 것은 과거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증시가 성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초우량주로 꼽히는 주식의 가격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리드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주식시장도 1992년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식투자를 개방하면서 선진화된 투자 기법의 도입과 함께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진 각국의 주식시장이 경험했던 기관화 현상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량주 및 자산주의 증시 주도 경향은 향후 몇년간 우리 주식 시장을 특징 지우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